

광산구 핵심과제 '일자리·명품길' 쟁걸음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연구용역 착수
송산근린공원-두물머리 탐방로 추진

광주 광산구가 광산 실험의 2대 핵심 과제인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견고 살고 찾고 싶은 광산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2일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 용역은 광산구의 산업, 노동환경 분석, 일자리, 산업 관련 이해당사자, 유관 단체 시민 의견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 광산구는 실태 조사 결과와 국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일자리 개혁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인 지속성장 일자리과를 신설한 광산구는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단, 추진협의체 구성 등 추진체계를 세우고, 좋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국내 일자리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단은 8차례 운영을 통해 특구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추진계획을 내실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정책포럼과 지난 6월 더 나은 일자리 토론회 개최 등 일자리 개혁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 등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장도 마련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내년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를 위한 마지막 담금질이 될 전망이다.



민선 8기 광산구의 역점 사업인 명품길 조성 사업 핵심 거점인 황룡강 장륙습지 전경.

이와 함께 광산구가 '생태를 품고 문화와 예술을 잇는 끝없는 길'을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품길(생태, 문화, 예술 탐방로 30리길) 조성 사업도 순항 중이다. 이 사업은 송산근린공원부터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까지 12km를 걷고 싶고, 찾고 싶은, 즐길거리 가득한 탐방로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민선 8기에 신설한 명품길추진단을 주축으로 광산구 9개 부서가 참여해 18개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현장 방문과 선진 사례 답사 등을 거쳐 현재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서봉천수지구 환경정비 및 꽃단지 조성, '덩짜리 5리길' 조성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위한

사업과 더불어 직접 시민과 걷고, 자전거를 타며 30리길의 매력을 만끽하는 참여 행사도 진행했다. 선운근린공원 아린경관 조성, 거점별 테마와 스토리텔링을 특화시킨 걷기 코스 개발 등도 추진 중이다. 최근 '명품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돼 조만간 구체화한 비전과 실행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삶과 힐링이 가득한 광주 대표 명소는 광산을 넘어 광주시민 모두의 꿈"이라며 "지속가능한 광산이라는 방향성을 중심으로 두고,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제36회 광주시 미술대전에서 입상한 광산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화교실 수강생 김현순(왼쪽부터), 백경순, 김은정, 최혜숙씨.

중년에 시작한 민화그리기, 인생 2막 꽃피워

광산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화교실 4명 '광주시 미술대전' 입상

광주 광산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민화교실 수강생인 김은정(49), 김현순(47), 백경순(63), 최혜숙(62)씨가 '2023 광주시 미술대전' 입상에 성공했다. 인생 2막에서 멋진 결실을 거둔 이들 4인방은 40~60대에 처음 붓을 들었다. 이전에는 제대로 그림을 배우고 그려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이들이 삶의 전환점에서 민화를 택한 것은 다른 취미활동에 비해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민화교실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들은 체계적으로 이론을 배우고, 전문 강사와 함께 직접 그림을 그리며 민화의 매력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자연스럽게 그림을 대하는 태도도 진지해졌다. 단 순히 예쁘게 그리는 것을 넘어 감성과 분위기를 담고, 나만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생명력을 불어넣은 '작품'에 대한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 민화교실을 수료한 뒤 '민화이야기'라는 동아리를 꾸려 습작을 거듭하며 실력을 다진 이들은 올해 제36회 광주시 미술대전 전통미술(민화) 부문에 작품을 출품하는 용기도 냈다. 김은정, 최혜숙씨는 특선, 김현순, 백경순씨는 입선 수상자에 이름

을 올렸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신인 작가의 등용으로 알려진 광주시 미술대전에서 당당히 실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선 입상자인 김은정씨는 "민화교실은 붓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나만의 인생철학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했던 노력이 이번 대전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인생 2막을 화려하게 연 4인방은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미술 지도 등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한 그림을 매개로 이웃을 웃게 하고, 좋은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일들을 찾고 실천하겠다는 포부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나이를 떠나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꿈꾸고,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며 "광산시민의 평생 행복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 광산 도시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산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50+ 생애전환기' 중장년을 위해 인생 2막 재설계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 자격 배움, 취미, 여가, 인문학 등 7개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다 함께 체감하는 양성평등 실현"

광산구, 9월1~5일 아빠 육아 사진전·체험 등 기념행사

광주 광산구는 "2023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기념식만 열었으나 올해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광주송정역, 모아모아행복센터, 광산구청 등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 예정이다. 9월 1일 오전 광산구청 1층에서 광산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캠페인과 체험을 진행한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약속 홍보지와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남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공간과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등을 운영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시민 대상 양성평등 캠페인을 연다. '평등나무'를 설치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추진할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4일에는 구청 7층 윤성원홀에서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상생하는 성평등 공동체 광산 구현'을 위해 광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인식 확산,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여성 폭력 예방 강화 등 정책을 공유하고, '여성·가족이 안전한 일상,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실현'을 함께 다짐할 예정이다.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부대행사로 성평등 특강과 '아빠 육아' 사진전도 마련한다. 5일에는 광산구 모아모아행복센터(광산구 용아로379번길 77 2층)에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을 주제로 성인지 특강과 토론회를 진행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기념행사가 양성평등에 대한 공직자,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이해와 존중, 배려를 통한 상생 공동체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집중안전점검 최우수

광주 광산구는 "대한민국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에 대한 광주광역시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된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 실효성, 안전 문화 확산, 보수보강 및 후속 조치, 결과 공개 및 이력 관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광산구는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우수' 자치구에 이름을 올렸다. 광산구는 올해 총 122곳을 점검해 안전관리 상태를 살피고, 재난·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했다. 또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 자원으로 구성된 민간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해 빈틈없는 '정밀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열화상 카메라,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효율성도 높였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정책네트워크 위원 24명 위촉

4개 분과 구성·운영...의제 개발, 정책 자문·연구

광산구의회는 지난 25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정책 연구 및 자문 등을 수행할 '제1기 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회'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에는 김태완 의장을 비롯한 광산구의원과 신규 정책위원 24명이 함께했다. 이날 위촉된 '제1기 정책위원'은 분야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5년 8월 24일까지 총 2년이다. 정책위원들은 의회운영과 행정자치, 경제복지, 시민안전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되며, 소관 분과 관련 의제 개발, 정책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태완 의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정책위원님들이 정책네트워크로 합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문지식과 고견을 통해 광산구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광산구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의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난해 12월 광산구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올해 처음으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과	수시	정시	
인문사회	신학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7	3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계		83	22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3. 9. 11(월) ~ 15(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3. 10. 6(금)

· 전형일: 2024. 1. 19(금)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3. 9. 11(월) ~ 15(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증명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믿음이 있는 대학·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소로 36